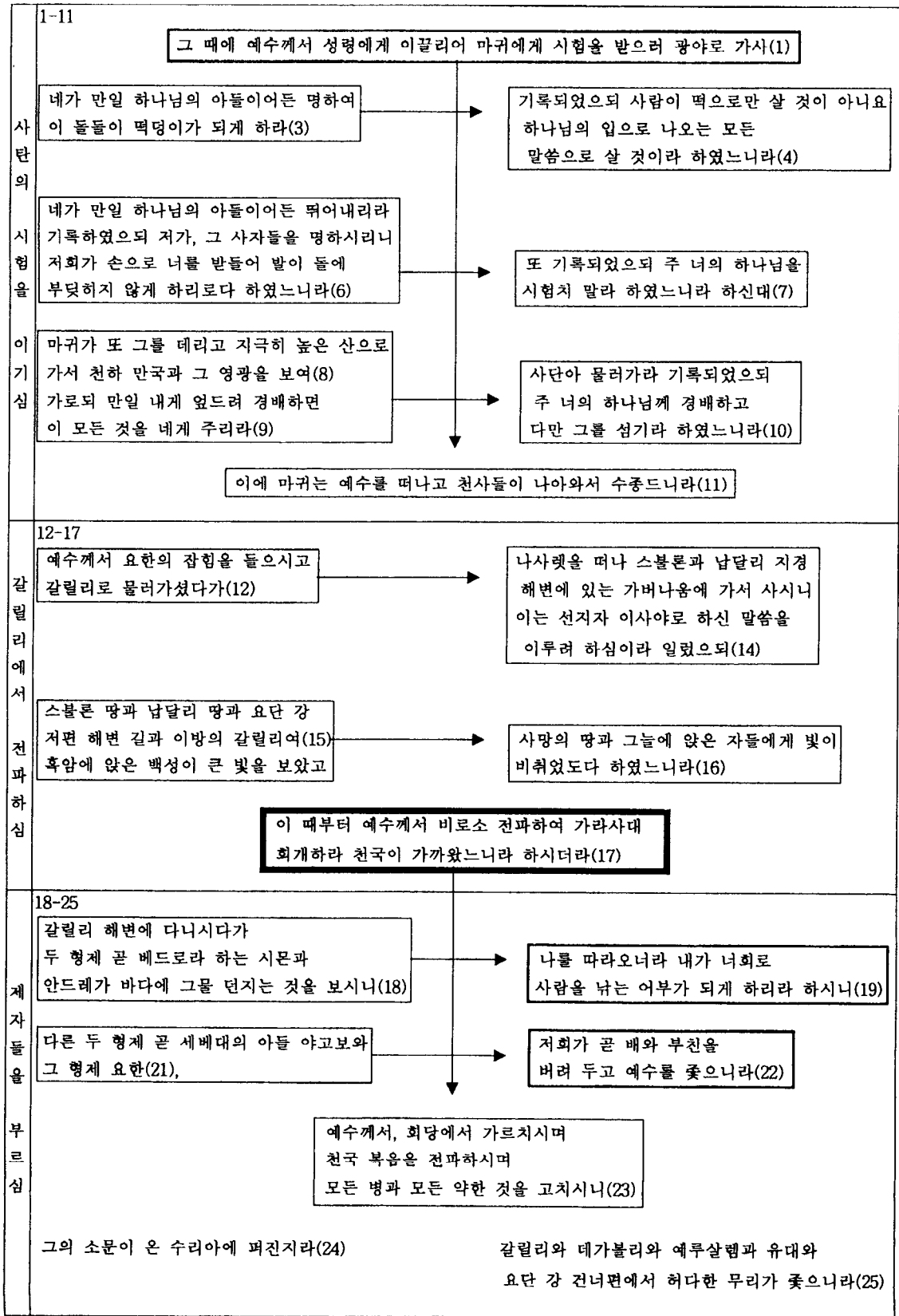


마태복음 4장 개관도표
주제 :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심



마태복음 4장,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심

요절 :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4장은 주님께서 공생애에 접어들어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3장에서 세례 받으심과, 성령이 임하심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으신 주님의 첫 사역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첫째 단원) 일입니다. 이는 “둘째 사람”의 사역이, “첫째 사람”(고전 15:47)이 넘어진 그 지점에서 시작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첫 사역의 무대(둘째 단원)로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셋째 단원) 하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4장의 대의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1)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

둘째 단원(12-17)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전파하심

셋째 단원(18-25)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으심

첫째 단원(1-11)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1).

①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이라면 의외(意外)라 여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첫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가?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1상)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령”은 마귀가 시험을 하려해도 막아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대번에 이 일이 일반적인 시험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막 1:12) 합니다.

② 주님은 개인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첫 대표자(시조) 아담이 패배한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읍기를 들어서 설명함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 종 읍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읍 1:8) 하고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읍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고 응수합니다. 그리하여 읍기는, “읍”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읍은 파도처럼 물려오는 시험들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만일 사탄의 말대로 “대면하여 주를 욕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참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이 에덴에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겔 36:20)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③ 그런데 읍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못됩니다. “그 후에 읍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읍 3:1)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읍 3:11) 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고 말씀함으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사역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 하심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④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명심해야할 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선적인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문의 첫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예가 걸려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기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악조건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신 것입니다.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1하)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사 35:1) 합니다. 이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같은 심령들이 은혜로 소성 함을 입어 기뻐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하듯 광야는,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의 처소(處所)를 상징합니다. 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 107:4-9)

②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히 2:15)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신 8:2) 하신, 첫 출애굽 때 실패한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시 78:40) 합니다. 광야는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이 엎드러진 장소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미지는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신 성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③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그 의미를 바르

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기한 세 가지 시험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주님께 고통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간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혹독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마 16:21-23)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제기한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받아드리셨다면 주님은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① 사탄의 첫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3)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상황에 맞게 각색을 했을 뿐, 내용 면에서는 인류의 첫 시조가 당한 시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이 첫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은 이 첫 시험에 코가 꿰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6:31-32)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의 신(神)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빌 3:19) 했습니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4)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주님은 자신의 말로 웅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겹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의 근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습니다. 첫 대표자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 주님은 세 번 다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즉 신령한 만나가 육신의 떡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물리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식생활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들이 대답할 말씀인 것입니다.

②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6)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간교함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고 웅수하시니까, 얼른 “기록하였으되” 하고 성구를 인용하여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편 91:11-12절을 인용했는데, 어찌하여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귀절을 인용했느냐 하는 점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절

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13)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8-19) 하신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될 것을 벌써 창세기 3:15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귀절은 가장 증오하는 말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한 신명기 6:1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3:17)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確證)하여(롬 5:8)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려는 사탄의 시험에 우리들이 대답할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시 78:40-42).

㉡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9)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눈 딱 감고 한 번쯤 절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은 출세지상주의에 빠져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성장 위주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절 한 번하기만 하면 큰 예배당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 “사단이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0). 이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하신 신명기 6:13-14절의 인용입니다.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도, 평안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 절 한 번해서 평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과, 머리 한번 숙이지를 않아 죽임을 당할 경우가 형제 앞에 닥친다면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이런 양자택일이 모르드개 앞에도(에 3:2),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도(단 3:15),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도 놓여있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절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했습니다. 이것이 혼합종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왕하 17:33).

㉤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11).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눅 4:13). 그렇습니다. 떠난 것은 “얼마 동안”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도(16:23), 가롯 유다를 통해서도(눅 22:3)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벧전 5:8) 있습니다.